

영밴드 '마마스견'과 함께 싱글 발매한 유준상

“힘들수록 긍정 마인드 젊게 사는 비결이죠”

“뮤지컬에, 음악 작업에, 영화 제작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우리 나이로 50살에 피터팬으로 사는 비결요? 힘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넘기려는 노력 덕분입니다.”

배우 겸 가수 유준상이 최근 디지털 싱글 '서든 리' (Suddenly)를 발표했다. 1995년 SBS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유준상은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우뚝 섰지만 그가 음반을 5장이나 낸 '가수'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난 유준상은 “배우일 때 이야기 전달자가 되지만, 음악을 만들 땐 주체가 된다. 진짜 모습을 보여줄 도구로서 앞으로 음악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든 리'는 영국 밴드 마마스견의 보컬 앤디 플랫폼츠가 만든 곡이다. 플랫폼츠는 박효신, 존박 등과 함께 작업한 뮤지션. 유준상은 뮤지컬 발성이 묻어나지 않도록 보컬 레슨을 받으며 가요 느낌을 살렸다.

“앤디 플랫폼츠가 정말 열심히 해주어서 놀랐어요. 데모곡을 들어보더니 드림, 기타 사운드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다시 녹음해서 보내주고, 나중에 한국 오거든 받아라든 사귀어줘요. 미안한 건 제 노래가 음원 차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 친구는 내심 기대했을 텐데, 하하하.”

걸그룹 대전이 벌어진 8월에 발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음악으로 시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누군가 제 음악을 듣고 위안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낸다”고 밝혔다.

유준상은 3년 전 음반회사 쥬네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기타리스트 이준화(28)와 '제이앤조이20' (JnJoy20)이라는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제이앤조이20 인(in) 경주', '제이앤조이20 인(in) 아프리카' 발매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주 앨범은 수목화 대가인 소산(小山) 박대성 화백의 그림에서 모티프를 얻었는데, 현재 12명의 국악 연주자와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이 메가폰을 잡은 세 번째 음악영화 '스프링 송' (Spring Song)도 최근 일본 후지산에서 촬영을 마쳤다.

지칠 줄 모르는 창작욕이 버겁지 않냐고 물었지만, 우문현답이 돌아왔다. 23년 배우 생활에서 배운 건 '무엇이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다. 그는 “우공이산(遇功移山)이라 할 만하다.”

“전 한 번 약속한 건 몇 년이 지나도 지키려고 노력해요. 경주 앨범, 아프리카 앨범도 3~4년 전부터 착수한 거고, 영화 '스프링 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번 영화는 현지 로케이션 비용이 꽤 들어서 그대로 멈추긴 아깝더라고요. (웃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 순차적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도 털어냈다. “올해 제가 50이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딱 50세에 돌아가셔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늘 50세가 되지 않길 바랐죠. 그 나이가 되면 죽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백세시대니까 50세면 정말 젊은 나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작년에 뮤지컬 '벤 허'를 할 땐 백군을 만들어서 두 달 반 동안 유지하기도 했어요.”

나이에 걸쭉 젊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는 긍정의 힘을 강조했다.

“누구나 고민이 있었어요. 20대 때는 가장이 돼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했고,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신체 오른쪽을 다 못 쓰세요. 이런 상황을 접하면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다들 힘든데 나만 힘든 거겠어?’라는 생각이



로 넘기려 해요. 전 그걸 혼련이라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앨범과 영화가 손익분기점은 넘나고 묻자 유준상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확하게 '0'에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 나면 못하죠. 대신 손이 많이 가요. 녹음실 비용이 만만찮아서 준화 집에 녹음기계를 세팅했죠. 이제 준화가 스튜디오 기사님 못지않게 잘해요. 앨범 재킷은 사무실 식구들과 색종이를 하나씩 오려서 만들어요. 그래도 외국 믹스마스터에게 음악 작업물을 맡기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대로 만든 게 느껴져 참 좋다'는 피드백이 와요. 전문가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큰 힘이 돼요.”

인터뷰를 마칠 즈음 무렵, 유준상은 “60살이 돼서도 가수로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싱긋 웃어 보였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시민주도 통일문화운동 '원케이글로벌캠페인' 출범식에서 작곡가 김형석, 작사가 김이나, 걸그룹 디아아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두 함께 통일 노래 만들어요”

김형석 작곡가, '3·1운동 100주년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 출범

김형석 작곡가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음악·영화·미술을 아우르는 통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케이(One K) 글로벌 캠페인 총괄감독인 김 작곡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 출범식에서 “요즘 남북관계가 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이를 위한 전 세계인의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다.

2015년 방탄소년단 정국, 레드벨벳 웬디 등이 부른 '원 드림 원 코리아'와 인순이가 부른 '하나의 꿈', 2017년 '코리아안 드림' 등의 노래를 선보였다.

김 작곡가는 “중책을 맡은 뒤 통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외가가 살았던 출신이어서 어릴 때 남북이산가족 상봉 방송을 보며 슬퍼하던 외할머니와 어머니 모습이 생각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곡에 어떻게 담을지,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좀 더 감성적으로 교류하고 화합해 한민족이 융비하는 미래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코리아안 드림'의 가사

를 쓴 김이나 작사가도 작업 소감을 밝혔다. 김 작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유독 어려웠다. 가사 수정 작업도 많았다”며 “그런데 서인택 원케이글로벌캠페인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부터 역사 교육을 받으며 맥을 잡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통일'까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집으로 치면 방만 열리면 끝난다는 마음이었다”며 “한국은 3·1운동을 할 때 더 큰 꿈이 있었는데 저는 무의식중에 축소된 형태의 꿈만 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마치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미래를 상상하며 가사를 썼다”며 “그런 상상을 많은 분이 해보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선 원케이글로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새로운 통일 노래를 발표하고 12월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K팝 가수들이 주축을 이루며 북한 가수들의 참여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28~10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8 북한 자수 특별전'을, 내년 3월 서울에서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평화미술제'를 연다.

내년 3월 1일에는 'SBS 특집 3·1운동 100주년 원케이 콘서트'를 개최하며 통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도 개봉한다. 영화 배경은 '유럽의 노스코리아 타운'으로 불리는 영국 뉴몰든이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탈북민이 뉴몰든에 거주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1박 2일	30 930 MBC 뉴스 50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식	10 생활의 달인 스페셜 55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
10	00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11	05 광복절 특집다큐 독립운동을 한 의사들		05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05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재)
12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40 러블리 호러블리 (재)	25 복면가왕 1~2부 스페셜	15 SBS 뉴스 25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역사통일 골든벨 (재)			3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2	50 전국노래자랑 (재)	50 엄마 아빠는 외계인 (재)	20 시간(재)	40 집사부일체 스페셜 1~2부(재)
3			30 MBC 뉴스 45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4	00 광복절 특집 시사기획 창(재) 55 UHD 숨터 (재)	15 거기가 어디데??		10 SBS 뉴스 20 친애하는 판사님께 모아보기 1~2부
5	00 KBS 뉴스 1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25 2018 DMZ 평화콘서트 원 코리아 평화의 물결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 7 30 광복절 특집다큐 독립의 노래, 그곳에 여성이 있었다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내일도 맑음	20 2018 자카르타 -팔렐방 아시아게임	40 2018 아시안게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3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역사저널 그날	4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	3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우리가족 거리 춤하기 - 부모성적표	16:30 알라라 뿌우(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 5천년의 공존 인도네시아 물소>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육개장과 부추무침>	17:15 얼마 까투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알면 알수록 궁금한 미얀마 3부 신비의 부족 모겐족을 찾아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5
07:30 꼬마버스 타요	12:10 광복절 특선 영화 <동주>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10 광복절 필리 <하늘에서 본 한반도-호남제일문 전주>	19:30 EBS 뉴스
08:30 미니특급 X	14:30 코코몽3	19:50 초이슈
08:45 알라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09:00 얼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21:30 한국기행 <여름 앞자기행 3부 비밀의 향기>
09:30 원더볼츠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극한직업 <폭염과의 사투! - 동물원과 식물원>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5일(음 7월 5일 己卯)

<p>36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시기에 놓이게 된다. 48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 60년생 속을 들여다볼수록 구조가 복잡하다. 72년생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겠다. 84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68</p>	<p>42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54년생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66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깃드는 상태이다. 78년생 기필코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90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37</p>
<p>37년생 열린 마음이 많은 기회를 담보하라. 49년생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61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인다. 73년생 심년 목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할 것이다. 85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45</p>	<p>43년생 정면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55년생 돌발 상황이 속출하면서 정신없겠다. 67년생 순간의 호반을 주하라. 79년생 꿈이나 그려왔던 이상적인 것을 우연히 마주칠 수다. 91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38</p>
<p>38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50년생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62년생 경제성부터 헤아리라. 74년생 역할이 가중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6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4, 17</p>	<p>44년생 손쉽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기대치와 현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라. 68년생 궁극적으로 이롭다. 80년생 다른 기운이 보이니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힘들다. 92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85</p>
<p>39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실용적이다. 51년생 의연히 대처하다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63년생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75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87년생 초기에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45, 82</p>	<p>45년생 결과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57년생 내내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이 다 한다. 69년생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1년생 그 어느 것보다도 돋보일 것이다. 93년생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1, 84</p>
<p>40년생 흑시나 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날이다. 52년생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기함이 있다. 64년생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76년생 예정대로만 해 나간다면 아무 이상이 없겠다. 88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61</p>	<p>34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46년생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58년생 다소 번거롭게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원칙을 따르라. 70년생 기반이 조성되겠다. 82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75</p>
<p>41년생 사소한 원인도 예의 주시해야만 한다. 53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65년생 호반을 할 수도 있다. 77년생 한 번의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89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심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0, 70</p>	<p>35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47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59년생 소매통받으며 기다려 왔던 바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71년생 합치고 보자. 83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 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1, 9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